

# <<靈樞·癰疽>>中 癰疽의 기전에 對한 考察

高祐新 · 崔海輝 · 林圭庠\*

## 1. 緒 論

癰疽는 韓醫學的으로 肌肉, 骨髓, 臟腑部位에서 局部的으로 發熱, 發赤, 堅硬, 腫痛, 患部の 陷沒突起 및 化膿 등의 樣相을 나타내는 證狀의 總括的 概念이며, 西洋醫學的으로는 病原性 微生物의 感染으로 毛細血管의 擴張과 血液 및 體液의 貯溜로 發熱, 浮腫, 疼痛, 機能失調 등의 證狀을 수반하는 炎症性 疾患과 肌肉의 異常增殖으로 因한 腫瘍性疾患의 範疇에 該當된다 하였다.<sup>1)</sup>

이와같이 單純한 證기로부터 各種 癰에 이르기까지 넓은 範疇를 차지하고 있는 癰疽에 對하여 黃帝內經<sup>2)</sup>의 <<靈樞·癰疽>>를 研究함으로써 癰疽의 概念을 理解하고자 하였다.

本篇은 <<黃帝內經章句索引>>을 따라 3章으로 나뉘었으며<sup>3)</sup>, 本篇의 要旨로는 癰疽의 成因과 癰과 疽의 區別 및 惡化의 過程을 仔細하게 說明하였는데, 癰疽의 發生原因으로는 外邪

가 經脈氣血의 運行을 막음으로 해서 衛氣가 局部에 積聚되어 생긴다 說明하였다. 아울러 癰腫이 化膿이 된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膿을 排除하여 病毒을 나가게 하여 內部로 미치지 않게 한다. 또 猛疽, 天疽, 腦爛, 疵癰, 馬刀挾纓, 井疽, 甘疽, 敗疵, 股脛疽, 銳疽, 赤施 ... 등을 列舉하여 이것의 症狀, 部位, 治療 및 預後 등에 對하여 概括的으로 分別하였다<sup>4)</sup>.

이에 著者는 原文의 深奧한 뜻을 把握하기 위하여, 3章 中에서 1章만을 선택하여 張의 <<類經>><sup>5)</sup> 등 여러가지 註를 比較함으로써 1章에 나타난 癰疽의 뜻을 살피고자 하였다.

## 2.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原文에 懸吐, 校勘, 字句解, 較註를 달고 直譯과 意譯을 하였다.

가. 原文은 王水의 <<黃帝內經靈樞>> 珍

圓光大學校 韓醫科 大學院 外官科.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1) 鄭善充 : 內託 活湯 煎湯液이 實驗動物의 鎮痛, 消炎, 解熱 및 筋弛緩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 大學院, 1990.

2) 王水 : 黃帝內經靈樞, 珍倣宋版印本, 中華書局

3) 任應秋 :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4) 楊維傑 :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84

5) 張介賓 :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倣宋版印本<sup>6)</sup>에 準하였다.

나. 章으로 나눈것은 任<sup>7)</sup>의 <<黃帝內經章句索引>>에 準하고, 河北醫學院<sup>8)</sup>의 <<黃帝內經靈樞校釋>>, 張<sup>9)</sup>의 <<類經>>을 參考하여 3章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는 그 中 1章만을 選擇하였다.

다.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에 準하였다.

라. 校勘은 郭<sup>10)</sup>의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洪<sup>11)</sup>의 <<精校黃帝內經靈樞>>, 楊<sup>12)</sup>의 <<黃帝內經太素>>, 河北醫學院<sup>13)</sup>의 <<黃帝內經靈樞校釋>>을 參考하였다.

마.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바. 較註는 아래 5種 文獻의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든 註 가운데서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를 달아서 參考하도록 하였다.

### < 參考較註書目 >

1. 馬 蒔(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以下 “馬”로 約한다.)
2. 張介賓(明): <<類經>> (以下 “景岳”으로 約한다.)
3. 張志聰(清): <<靈樞集註>> (以下 “張

”으로 約한다.)

4. 山東省中醫院(1958): <<黃帝內經靈樞白話解>> (以下 “白話解”로 約한다.)

5. 河北醫學院(1982): <<黃帝內經靈樞校釋>> (以下 “校釋”으로 約한다.)

사. 直譯은 原文 解讀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附言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較註에 [ ], 字句解에 ( ), 校勘에 ), 引用文獻에 <<>>. 引用篇名에는 <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一聯番號로 表示하였다.

## 3. 研究內容

### 1. 제1장

[原文]

黃帝曰.. 余聞腸胃受穀하면 上焦出氣[1]하야 以溫分肉 而養骨節하며 通腠理(1)[2]하고 中焦는 出氣如露(2)[3]하야 上注(3)谿谷(4)[4]而滲(5)孫脈(6)하고 津液和調(7)하야 變化而赤爲血이라 血和則孫脈先滿溢1)(8)하야 乃注於絡脈(9)하고 皆盈2)(10)이던 乃注於經脈이라 陰陽已張하던 因息乃行[5]하니 行有經3)紀(11)하고 周有道理[6]하니 與天合同하야 不得休止[7]

6) 王冰: 黃帝內經靈樞, 珍倣宋版印本, 中華書局  
 7)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8) 河北醫學院: 黃帝內經靈樞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10)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1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5.  
 13) 河北醫學院: 黃帝內經靈樞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라 切而調(12)之[8]하야 從虛去實한데 寫則不足[9]이오 疾則氣減이니 留則先後[10]라 從虛去壅한데 補則有餘[11]이오 血氣已調하니 形氣4)乃持(13)라 余已知血氣之平與不平인데 未知癰疽之所從生하고 成敗5)之時하며 死生之期에 有遠近何6)以度之라 可得聞乎아 岐伯曰.. 經脈留7)行不止는 與天同度(14)하고 與地合紀라 故天宿(15)失度[12]하면 日月薄(16)蝕[13]하고 地經失紀[14]하면 水道流溢하며 草莖8)(17)不成[15]하고 五穀不殖(18)하며 徑(19)路不通하야 民不往來하고 巷聚邑居하니 則9)別離異處하니이다 血氣猶然하니 請言其故라 夫血脈營衛는 周流不休하니 上應星10)宿하고 下應經數이라 寒邪11)客(20)於經絡之中하면 則血泣(21)하고 血泣則不通하며 不通則衛氣歸(22)之하고 不得復反[16]하야 故癰腫12)이라 寒氣化爲熱하며 熱勝則腐肉하고 肉腐則爲膿이라 膿不寫則爛(23)筋하고 筋爛則傷骨이라 骨傷則髓消하며 不當骨空(24)[17]하면 不得13)泄寫하니 血14)枯空虛하야 則15)筋骨肌肉不相榮하니 經脈敗(25)滯(26)하면 薰16)(27)於五藏하고 藏17)傷故死矣[18]라.

[校勘]

1) 溢: <<甲乙>>卷十一第九, <<鬼遺方>>卷四, <<千金翼方>>卷二十三第一, <<醫心方>>卷十五第一에는 없다. <<太素>>卷二十六<癰疽>에는 滿으로 되어 있고, 溢은 다음에 붙는다.

2) 皆盈: <<甲乙>>卷十一第九, <<千金翼方>>卷二十三, <<醫心方>>卷十五에는 이 앞에 “絡脈”二字가 더 붙어 있다.

3) 經: <<千金翼方>>卷二十三, <靈樞略.六氣論>에는 “綱”으로 되어 있다.

4) 氣: <<太素>>卷二十六<癰疽>.

<<鬼遺方>>卷四, <<千金翼方>>卷二十三에는 “神”으로 되어 있다.

5) 敗: <<藏本>>, <<鬼遺方>>에는 “散”으로 되어 있다.

6) 有遠近: <<甲乙>>卷十一第九, <<千金翼方>>卷二十三에는 이 앞에 “或”字가 들어가 있고, <<太素>>卷二十六<癰疽>. <<鬼遺方>>卷四, <靈樞略.六氣論>, <<醫心方>>에는 이 앞에 “期”字가 더 들어 있다.

7) 留: 馬注本, 日刻本, <<甲乙>>, <<鬼遺方>>, <<千金翼方>>에는 “流”字로 되어 있다. “流”字로 되어야만이 이것과 <素問.學痛論>에서 “經脈流行不止”와 同一하게 된다고 하였다.

8) 莖: <<太素>>卷二十六<癰疽>, <<醫心方>>卷十五에는 “蘆”이라 하였다. 按: 楊上善은, “蘆 草名也, 亦節枯也”라 했고, 肅延平 按에, “蘆 靈樞作莖. 玉篇: ‘莖’, 本作宜, 鹿蔥也. 廣韻: ‘蘆, 草死也.’ 與 楊注‘節枯’之義同, 較莖義爲長”이라 했다.

9) 則: <<太素>>卷二十六<癰疽>, <<甲乙>>卷十一第九, <<鬼遺方>>卷四에는 이 글자가 없다.

10) 星: <<甲乙>>卷十一第九에는 “天”으로 되어 있다.

11) 邪: <<太素>>卷二十六<癰疽>, <<千金翼方>>卷二十三, <<醫心方>>卷十五第一에는 “氣”字로 되어 있다.

12) 故癰腫: <<甲乙>>卷十一第九, <<千金翼方>>卷二十三에는 “腫”字아래에 “也”字가 더 있다.

13) 不得: <<千金翼方>>卷二十三, <靈樞略>에서는 “不得”字 위에 “骨空”二字가 더 있다.

14) 血: <<太素>>卷二十六, <<醫心方>>卷十五에는 “煎”으로 되어 있다.

15) 則: <<甲乙>>卷十一第九에는 “則”字 위에 “枯空”二字가 더 있다. 16) 薰: <<醫心方>>卷十五에는 “薰”字 위에 “丙”字가 더 있다.

17) 藏: <<鬼遺方>>卷四에는 “藏”字 위에 “五”字가 더 있다.

[字句解]

- (1) 腠理 : 皮膚, 筋肉, 臟腑의 紋理.  
皮膚와 筋肉이 交接되는 곳.  
“皮腠”라고도 함.<<漢醫學 辭典>>
- (2) 露 : 이슬로(陰之液霜之始)
- (3) 注 : 물뿜주(灌溉)
- (4) 谿谷 : 肌肉의 小會處叫溪, 大會合處叫谷.  
<<白話解>>  
肉之大會爲谷, 肉之小會爲溪.  
肉分之間, 谿谷之會, 以行營衛,  
以會大氣.<素問氣穴論>
- (5) 滲 : 스밀삼(漉也)
- (6) 孫脈 : 絡脈보다 더 작은 극히 많은 分支를 말한다. <<漢醫學 辭典>>
- (7) 調 : 고를조(和也)
- (8) 溢 : 가득찰일(器滿)
- (9) 絡脈 : “絡”이라고도 함. 絡脈은 經脈에서 分出된 網狀의 大小分支이다.

<<漢醫學 辭典>>

- (10) 盈 : 찰영(充滿)
- (11) 紀 : 법기(法也. 綱紀)
- (12) 調 : 가릴조(選也)
- (13) 持 : 定也.<<類經>>
- (14) 度 : 법도도(法制)
- (15) 宿 : 성과수(星座)
- (16) 薄 : 꺾박할 박(追也)
- (17) 蒼 : 흰추리 흰(一名 宜男草).<<康熙大玉篇>>
- (18) 殖 : 날식(生也), 불을식(蕃也)
- (19) 徑 : 지름길 경(小路)
- (20) 客 : 불일객(奇也)
- (21) 泣 : 灌同.<<類經>>  
擬于脈者爲泣.<素問.五藏生成篇>  
泣, 謂血行不利.<<王注>>
- (22) 歸 : 歸, 訓爲藏.<<校釋>>
- (23) 爛 : 익을란(熟也, 彌爛)
- (24) 骨空 : 就是骨節交會의 空隙處.<<白話解>>
- (25) 敗 : 무너질 꺾(壞也)
- (26) 漏 : 설루(泄也)
- (27) 薰 : 혼합훈(灼也)

[較註]

[1] 上焦出氣: 白話解, 校釋<sup>14)</sup>은 “衛氣가 上焦를 따라 나와서 體表로 布散된 것을 가르키고, 溫分肉하고, 骨節을 營養하며, 通腠理하는 作用은 모두 衛氣의 主要기능이다.”하였고, 景岳, 馬<sup>15)</sup>는 “上焦出氣는 宗氣라 하였고, 宗

14) 白話解: 這裏的氣, 當指衛氣而言. 因溫分肉, 養骨節, 通腠理等作用. 〇 五味論.[上焦者, 受氣而榮諸陽者也.] 〇 千金方三焦脈論.[榮出中焦, 衛出上焦.]  
校釋: 指衛氣從上焦出發, 向體表布散. 〇 千金方, 三焦脈論.[榮出中焦, 衛出上焦.]  
15) 景岳: 上焦出氣. 宗氣也. 宗氣出於喉嚨而行呼吸.  
馬: 化爲精微之氣. 其宗氣出于上焦. 出喉嚨可呼吸.

氣는 喉嚨으로 나와서 呼吸을 맡는다”고 하였다.

[2] 以溫分肉. 而養骨節. 通腠理: 景岳<sup>16)</sup>은 “筋肉을 따뜻이 하고 骨節을 營養하며, 腠理를 소통시키는 것은 衛氣이며 이는 宗氣가 變換것이다.” 하였다.

[3] 中焦出氣如露: 白話解, 校釋, 景岳, 馬<sup>17)</sup>는 “中焦出氣는 中焦가 營氣의 運動을 맡는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如露는 津液이 分泌되는 형상이 비와 이슬의 모양을 하여 草木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全身을 營養할 수 있다.” 하였다.

[4] 谿谷: 校釋, 白話解<sup>18)</sup>는 “分肉사이에 작은 근육이 만나는 곳을 谿라 하고, 큰 근육이 만나는 곳을 谷이라 하는데, 營衛氣血津液이 通行하여 만나는 곳이다.” 하였다.

[5] 陰陽已張. 因息乃行: 校釋, 景岳, 白話解<sup>19)</sup>는 “陰陽은 臟腑經脈을 포함하고, 人體內外

表裏를 總稱한다. 張은 擴張의 뜻이고, 陰陽已張은 人體內外의 氣血이 充足된 것을 가리킨다. 息은 一呼一吸를 말하고, 因息乃行은 人體經脈의 氣가 呼吸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6] 行有經紀. 周有道理: 校釋, 白話解<sup>20)</sup>는 “經紀는 일정한 度數이고, 이는 營衛의 運行에 일정한 질서가 있고, 周는 循環을 말하고, 道理는 規律이다. 이는 營衛가 몸을 周行하는 것이 天體가 운동하여 돌고 다시 시작하는 자연 規律에 부합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하였다.

[7] 與天合同. 不得休止: 白話解<sup>21)</sup>는 “氣血의 運行과 天地日月의 運行은 같은 형태로 돌고 다시 시작하며, 끊임이 없음을 말함이다.” 하였다.

[8] 切而調之: 白話解<sup>22)</sup>는 “먼저 그 脈을 살펴서 虛實을 구별한 후 針으로 치료한다.” 하였다.

16) 景岳: 其以溫分肉. 養骨節. 通腠理者, 是衛氣化於宗氣也

17) 白話解: 中焦出氣, 是指中焦所輸出的營氣. 如露, 是形容所分泌的津液, 能像雨露灌溉着草木一樣, 可以營養全身.

校釋: 指營氣從中焦輸出, 其所分泌的津液, 滋養全身, 狀如雨露灌溉草木一樣.

景岳: 中焦出氣如露. 營氣也.

馬: 營衛生會篇云. 中焦亦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精粕蒸精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

18) 校釋: 分肉之間小的會合處叫谿, 大的會合處叫谷, 爲營衛氣血津液通行交會的所在. <<巢園>> 氣穴論云: “肉之大會爲谷, 肉之小會爲谿, 肉分之間, 谿谷之會, 以行營衛, 以會大氣.”

白話解: 肌肉的小會合處叫谿, 大會合處叫谷.

19) 校釋: 指陰陽經脈, 當衛氣血已充盈. 息, 卽一呼一吸, 這是說人體經脈之氣隨呼吸才能運行.

景岳: 其於陰陽已張. 因息乃行. 是榮氣化於宗氣也.

白話解: 陰陽是包括臟腑經脈和人體內外表裏的總稱. 張, 是擴張的意思, 也就是指人體內外的氣血充足而滿. 息, 就是一呼一吸. 因息乃行, 是指人體的經脈之氣隨着呼吸有規律的運行着. ○五十營篇.[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 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十息, 氣行六尺.]

20) 校釋: 經紀, 作一定的度數解. ○禮記.月令: “毋失經紀.” 郭玄注: “謂天文進退度數.” 這里是指營衛的運行有一定的秩序. 周, 循環. 道理, 卽規律. 這是說營衛運行于身, 符合天體運動周而復始的自然規律. ○太素.卷二十六癰疽注: “營衛氣行必有經紀, 營衛周行道理, 人與天道同運, 天運非常之道故不休也.”

白話解: 行, 是指日月的運行. 經紀, 就是一定的度數(禮記.毋失經紀. 注.謂天文進退度數也). 周, 就是環周. 道理, 是指日月所環周的軌道.

21) 白話解: 謂氣血之運行, 與天地日月之運行一樣, 周而復始, 不得休止.

22) 白話解: 則先診其脈, 別有虛實, 而後用針調治之.

[9] 從虛去實. 寫則不足: 校釋, 馬, 景岳<sup>23)</sup>

은 “虛는 瀉法을 가리키고, 邪氣로 하여금 虛衰케 한다는 뜻이다. 이는 瀉法으로 實邪를 제거하는데, 가령 瀉가 너무 많으면 반대로 正氣를 傷하고 不足하게 된다.”하였고, 白話解<sup>24)</sup>는 “虛는 刺針하는 法을 말하고, 實은 邪氣를 가리킨다.”하였다.

[10] 疾則氣減. 留則先後: 景岳, 校釋<sup>25)</sup>은 “瀉法은 意當 出針을 빨리하여 邪氣를 消滅시키게 하는 것이고, 留針을 오래하면 正氣之虛를 補하는 것인데, 이補와 寫라는 것은 빠름과 머무름에 先後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하였고, 馬<sup>26)</sup>는 “針을 빨리 뺌으로써 邪氣를 減少시키는데 만약 오래 머무르게 하면 邪氣를 除去하는 時期를 놓쳐서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하였다.

[11] 從虛去虛. 補則有餘: 景岳<sup>27)</sup>은 “虛한 것을 從治하는 法은 去虛함을 말함인데, 이것은 補가되면 有餘하여진다.”하였고, 校釋, 馬<sup>28)</sup>는

“實은 正氣의 補法을 충실히 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補法을 사용하여 虛證을 제거하는데 가령 補가 너무 지나치면 반대로 余邪가 다시 盛하여진다.”하였다.

[12] 天宿失度: 白話解<sup>29)</sup>는 “宿은 星宿이고, 度는 天度로서, 天宿失度는 天地日月과 모든 行星들이 자기의 정상적인 運行을 그르치는 것이다.”하였다.

[13] 日月薄蝕: 校釋, 白話解<sup>30)</sup>는 “日月蝕은 즉 日蝕, 月蝕을 말하며, 薄은 侵迫의 뜻이다.”하였다.

[14] 地經失紀. 水道流溢: 校釋, 白話解<sup>31)</sup>는 “經은 經水를 가리키는데, 이는 큰 河流이다. 失紀는 河流가 정상적인 水道를 따르지 못하고 독이 무너져 사방으로 넘쳐서 재해를 일으킨다.”하였다.

[15] 草薶不成: 校釋, 白話解<sup>32)</sup>는 “이는 草木이 죽어서 生長할 수 없는 것이다”하였다.

23) 校釋: 虛, 指瀉法, 使邪氣虛衰的意思. 這是說明用瀉法可去實邪, 而如瀉的大過, 反會傷及正氣, 以致不足. 〇 <<太素>>卷二十六癰疽注: “瀉者若順于虛, 專去盛實, 攻之甚者, 則不足也”  
馬: 其實者, 則從虛之之法以去其實. 所以瀉則不足, 而爲虛也.  
景岳: 從虛之之法以去實. 是寫則不足也.

24) 白話解: 虛實刺法, 實指邪氣.

25) 景岳: 凡寫者宜疾. 補者宜留. 是補之與寫. 有疾留先後之異也.  
校釋: 指瀉法宜疾速出針, 可使邪氣消滅. 指入留針, 可補正氣之虛.

26) 馬: 疾去減. 則邪熱減矣. 若久留其鍼. 先後如一.

27) 景岳: 從治虛之法以去虛. 是補則有餘也.

28) 校釋: 實, 指充實正氣的補法. 這是說用補法治虛證, 如補的太過, 反致余邪轉盛. 〇 <<太素>>卷二十六癰疽注: “若順實攻之于虛, 補之甚者, 則有餘也. 是以切而調之者, 得之于心, 不可過虛實也.”  
馬: 斯則從實之之法. 以去其虛. 所以補則有餘. 而爲實也.

29) 白話解: 宿即星宿, 度即天度, 天宿失度, 謂天地日月諸星之運行失其常度.

30) 校釋: 即日蝕, 月蝕.

白話解: 日月蝕, 即日蝕, 月蝕. 薄, 侵迫之義.

31) 校釋: 經, 指經水, 就是大的河流. 失紀, 這三是形容河流不能沿着正常的水道, 而潰決四溢, 泛濫成災.

白話解: 經, 是指經水, 也就是河流. 失紀, 是形容水流不能沿其原有的徑路, 像平常一樣地川流不息.

32) 校釋: 就是草死不能生長.

白話解: 薶, 就是薶莖草. 玉篇: [薶莖, 本作宜男, 鹿葱也.] 但考內經太素莖作薶. 楊上善注: [薶, 採古切, 草名也, 亦節枯也.] 志廷平說: [廣韻, 薶, 古採切, 草死也, 與楊三節枯之意同, 較莖義爲長.] 所以這裏的草薶不成, 當根據內經太素作草木枯萎解.

[16] 不通則衛氣歸之. 不得復反: 景岳, 校釋<sup>33)</sup>은 “歸는 감춘다는 것이다. 藏은 蘊積의 뜻이 있는데, 이에 따라 혈이 凝泣不通하면, 衛氣가 蘊積不暢하고, 血氣가 다시 돌지 못하여 癰疽가 생긴다.”하였다.

[17] 不當骨空: 張<sup>34)</sup>은 “骨空이라는 것은 節이 만나는 곳으로, 癰腫이 骨空의 場所에 있지 않으면 骨中에 邪熱을 泄瀉할 수 없다.”하였고, 校釋, 白話解<sup>35)</sup>는 “骨空은 骨節이 만나는 곳의 틈사이.”라 하였다.

[18] 薰於五藏. 藏傷故死矣: 景岳<sup>36)</sup>은 “癰毒이 淺에서 深으로 들어가면 藏을 傷하고 藏을 傷하면 죽는다.”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로는 腸胃가 飲食物을 受納하여 消化시키면, 上焦를 따라서 衛氣가 나와 筋肉을 따뜻이 하고, 骨節을 營養하며, 腠理를 疏通시키고, 中焦를 따라서 營氣가 나오는 것이 이슬과 같아서 위로 肌肉의 谿谷에 灌溉하고 이어 孫脈에 스며들며 津液을 調和시키고 變化하여 붉은피가 된다. 血行이 순조로우면 孫脈이 먼저 가득차고 이어서 絡脈에 스며들며, 모두 가득차면 이어서 經脈에 스며든다. 陰陽經脈의 氣血이 이미 充足하면 呼吸을 따라서 全身을 運行하는데, 運行하는데도 秩序가 있고 循環하는데도 一定한 規律이 있는것이 天地日月과 같은 形態로, 도는것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 먼저 그脈을 살펴서 區別한후, 瀉法으로서 實邪를 除去하는데 瀉가 너무 많으면 반대로 正氣가 不足하게 된다. 鍼을 빨리 뽑으면 邪氣를 消滅시키는데, 留鍼을 오래하면 邪氣를 除去하지 못하여 先後가 똑같다. 虛한것을 따르는 法을 취하여 虛를 없앴을 말하는데, 補가 너무 많으면 邪가 다시 有餘하여 지고, 血氣가 調和를 이루므로 形과氣가 維持된다. 나는 이미 血氣의 平衡과 不平衡을 알고 있지만, 癰疽가 어떻게 생기고, 成敗의 時期 및 死生の 時期가 얼마나 가깝고 먼가를 알지 못하는데, 듣고싶다. 岐伯이 말하기를 經脈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天地의 規律과 같고 땅의 秩序와 合致된다. 그러므로 天體가 規律을 잃어버리면 日蝕과 月蝕이 생기고, 땅의 秩序를 잃어버리면 水路가 넘치고 풀들이 자라지 않고 穀食들이 자라지 않으며 正常的인 通路가 막혀 百姓들이 서로 往來치 못하고, 一定한 地域에만 居住하니 서로 다른 地域에서 떨어져 있게 됩니다. 血氣도 그와 같으니 緣故를 말하고자 한다. 무릇 血脈營衛가 쉬지않고 흐르는것이 위로는 行星이 움직이는 規律에 相應하고, 아래로는 땅의 秩序에 相應한다. 寒邪가 經脈의 中間에 머무르게 되면 血이 짙어지고, 血이 짙어지면 不通하며 不通하면 衛氣가 감춰지고 다시 運行이 안되는 고로 癰腫이 생긴다. 寒氣는 化하여 熱로 되며 熱勝하면 肉이 썩고 肉이 썩으면 膿이 된다. 膿

33) 景岳: 衛氣歸之不得復反. 言其留聚不散也.  
校釋: 歸, 訓爲藏. <<易>>說卦傳: “萬物之所歸也.”廣注: “歸, 藏也.”藏, 引伸有蘊積之義. 此言, 血如凝泣不通, 則衛氣蘊積不暢, 血氣不得復返, 故生癰疽.  
34) 張: 骨空者節之交也. 癰腫不當骨空之處. 則骨中之邪熱不得泄瀉矣.  
35) 校釋: 骨空, 就是骨節交會的空隙處.  
白話解: 就是骨節交會的空隙處  
36) 景岳: 癰毒由淺至深. 傷藏則死.  
37) 吉仁浩: 營衛返魂湯이 實驗動物의 鎮痛, 消炎, 解熱 및 筋弛緩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 大學院, 1990

을 除스쳐 없으면 筋이 癱爛하고, 筋이 癱爛하면 骨을 傷한다. 骨이 傷하면 髓가 마르며, 骨空에 있지 않으면 髓을 滲설시키지 못하므로 血液이 마르고 不足하여지므로 筋骨肌肉이 培養을 받지 못하므로 經脈이 무너지고 새어서 熱毒이 안으로 들어가 三藏을 태워서 藏을 傷하므로 죽는다.

[考按]

“從虛去虛. 補則有餘”에서 虛를 校釋, 馬에서는 “從實”로 表現하였는데, “從實”로 하여야만 앞에 “從虛去實”과 相對되어서 맞는것 같다.

癰疽의 病因에 對하여 方等은 膏粱厚味나 營衛不從으로 病邪가 肉理氣分을 逆하거나, 臟腑不和, 九竅不通 등으로 發生한다고 보았고 耶等은 內因인 七情과, 外因인 六淫, 그리고 飲食飢飽, 傷氣 등의 不內外因에 의한다고 하였다<sup>39</sup> 여기에 나타난 癰疽의 病因은 寒邪가 經絡에 侵入하므로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한 癰疽 病因中の 한가지로 생각된다.

[意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로는 우리가 飲食物을 攝取하면 腸胃에서 飲食物을 消化吸收시키고, 精氣를 각곳으로 보낸다. 衛氣는 上焦에서 나와서 體表로 布散되어 筋肉을 따듯이 하고, 筋骨을 濡養하며, 腠理를 疏通시키는 작용을 하며, 營氣는 中焦에서 나와서 津液을 分泌하는데 그 形狀이 비와 이슬모양의 모양을 하여 초목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은 모양과 같이 筋肉의 谿谷에 흐르고, 점차적으로 아주작은 孫脈에 스며들며, 津液을 調和시키고 氣化作用을 거쳐서 變化하여 붉은색의 피가 된다. 血液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면, 孫脈이 먼저 充滿하고, 이어서 絡脈에 스며들며 絡脈이 모두 차면, 다시 經脈에 스며든다. 陰陽經脈과 營衛氣血이 모두

充足하면, 呼吸을 따라서 全身을 規則적으로 運行하는데, 營衛가 運行하는데도 秩序가 있고, 循環하는것도 天體가 운동하여 돌고 다시 시작하는 自然規律에 附合하여 氣血의 運行도 돌고 시작하여 끊임이 없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 먼저 그脈을 살펴서 虛實을 把握한후 鍼으로 治療하는데, 邪氣를 弱하게 하는 方法으로서 實邪를 除去하는데, 但 過度하게 溟法을 使用하면 正氣를 損傷하게 한다. 鍼을 빨리 뽑으면 邪氣를 除去하는데 萬若 留鍼을 오래하면 邪氣를 제때에 없애지 못하므로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 虛한것을 따르는 法을 취하여 虛를 없애는데 補가 너무 많으면 餘邪가 다시 有餘하여진다. 이런 補瀉의 目的은 血氣가 調和를 이루게 하여 形과 氣사이의 正常的인 活動을 維持케 한다.

나는 平衡協助의 原理를 이미 알고 있는데, 癰疽가 어떻게 發生하고, 形成과 惡化의 過程 및 죽음에 이르는 時期가 먼저 가까운지를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氣血이 經脈에 쉬지않고 運行하는 것이, 天地가 一定한 規律을 가지고 運行하는 것과 같고, 땅에서 일어나는 一定한 秩序와 附合된다. 그러므로 天地日月과 모든 行星들이 자기의 正常的인 運行을 그르치면, 日蝕과 月蝕과 같은 天體의 異變이 생기고, 땅에서 일어나는 現狀들이 一定한 秩序를 잃어버리면, 水路의 흐름이 막히던가, 넘쳐버려 그 원래의 흐름을 잃어버리며, 草木들이 말라서 生長을 하지 못하고, 五穀이 繁殖을 할 수 없다. 땅위에서 道路가 不通하면, 百姓들이 서로 往來할 수 없으며, 또 一定한 地域에만 있고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게 됩니다. 人體의 血과 氣의 運行도 이와 같으니 그 內容을 말하고자 합니다. 人體의 營衛氣血은 循環하면서 쉬지않고



도는 形狀이 위로는 行星의 形狀과 같고, 地面上에는 下流의 흐름과 같다. 만일 寒邪가 經絡中에 들어가면, 血液의 흐름이 더더지고 더더지면 不通하게 되고, 不通하면 衛氣가 한곳에 멈추어 쌓이고, 다시 反復할 수 없어서 癰腫을 形成한다. 寒氣가 머물게 되면 熱로 變하게 되고 熱毒이 旺盛하면 肌肉이 썩고, 肌肉이 썩으면 膿이 形成된다. 膿을 除去하지 않으면 筋을 彌爛하고, 筋이 彌爛하면 骨을 傷하며, 骨을 傷하면 骨髓를 말리고, 邪熱이 骨節이 만나는 틈사이에서 있지 않으면 膿毒을 排泄시키지 못하므로 血液이 消耗되고, 筋骨肌肉이 모두 營養을 받지 못하므로 經脈이 무너지고 새어서 癰毒이 淺部에서 深部로 들어가면 藏을 傷하고, 五藏이 損傷을 받으면 死亡에 이른다.

#### 4. 結 語

1. 本章의 內容을 要約하면 營衛가 우리몸에서 어떻게 생기고, 또 만들어진 營衛가 우리몸을 運行하는 것이 하늘에 있어서는 行星의 움직임과 같이 쉽이 없이 반복하여 돌고, 땅에서는 큰 下流가 자기의 正常的인 水路를 따라 흐르는 것과 같으니 그 흐름을 정확히 把握한후 虛實을 따져서 鍼으로 補瀉를 잘 함으로써 血氣가 調和를 이루어 身體와 精神이 正常的인 活動을 하게 하였으며, 이런 正常的인 運行에 障礙가 생기면, 하늘은 日蝕과 月蝕이 생기고 땅에서는 堤防이 터지거나 넘쳐서 草木들이 자라지 않고 百姓들은 正常的인 生活를 하지 못한다. 營衛도 이와같이 正常的인 運行을 하는데, 만일 寒邪가 經絡

에 들어가면 血液의 흐름이 더디고, 衛氣도 한곳에 멈추어 癰腫을 形成하는데, 寒氣가 오래되면 熱로되고 熱이 많으면 化膿한다 하였다.

2. “從虛去壅. 補則有餘”에서 虛를 校釋, 馬에서는 “從實”로 表現하였는데, “從實”로 하여야만 앞에 “從虛去實”과 相對가 맞는것 같다.
3. 癰疽의 病因에서 寒邪가 經絡에 侵入하므로 發生한다고 한 것은 여러가지 癰疽의 原因中 한가지로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1. 王 水：黃帝內經素靈樞，旋風出版社，台北，1979.
2. 河北醫學院：黃帝內經靈樞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
3.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台聯國風出版社，台北，1984.
4. 張介賓：原本類經，大星文化社，서울，1982.
5. 任應秋：黃帝內經章句索引，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6.
6. 馬 蒔. 張志聰：黃帝內經素問靈樞合篇，台聯國風出版社，台北，1981.
7. 楊上善：黃帝內經太素，大星文化社，서울，1986.
8.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研究院，서울，1985.
9. 洪元植：黃帝內經解釋(靈樞)，高文社，서울，1982.
10. 郭靄春：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天津科學技術出版社，天津，1981.

11. 鄭善充：內託 活湯 煎湯液이 實驗動物의 鎮痛, 消炎, 解熱 및 筋弛緩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 大學院, 1990.
12. 吉仁浩：營衛返魂湯이 實驗動物의 鎮痛, 消炎, 解熱 및 筋弛緩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 大學院, 1990.

### 參 考 辭 典 類

1. 張三植：大漢韓辭典, 進賢書館, 서울, 1981.
2. 郭靄春：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一中社影印, 1992.
3. 柳正基：康熙大玉篇, 民點社, 서울, 1979.
4. 洪元植. 金賢濟：漢醫學 辭典, 成輔社, 서울, 1990.
5. 中國語大辭典編纂室：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92.
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재편집 동의학사전, 도서출판 까치, 서울, 1990.
7. 金元中：虛詞辭典, 玄岩社, 서울, 1989.
8. 中醫研究院 . 廣東中醫學院：中醫名詞術語詞典, 商務印書館, 香港, 1975.